

# ‘호남 민심’ 압도적 지지…“더 이상 지역 소외 없어야”

## 민주당 대선후보 호남권 경선

20만명 투표 참여 88.69% 득표율  
‘될 사람에 힘 실어준 선택’ 평가  
당원 “내란 종식·호남 발전” 염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종료됐다. 약 20만 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재명 후보가 88.69%득표율로 압승을 거둔 가운데, 시민들은 내란 종식과 호남 발전을 한목소리로 염원했다. 지역정기는 “투표로 민심을 말한 만큼 이제는 호남 소외가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호남권 경선에서 이 후보는 김동연 후보(7.41%), 김경수 후보(3.90%)를 큰 격차로 제치고 승리를 따냈다. 민주당 독점체제와 이 후보에 대한 반감이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호남민들은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투표율 수치에서도 확인된다. 선거인단 37만4141명 가운데 20만809명이 투표해 53.67%를 기록했다. 투표율만 보면 앞선 충청권(57.87%)과 영남권(70.88%)보다는 낮지만, 절대 투표자 수는 이전 대선 경선에 비해 크게 늘었다. 특히 권리당원 수가 20대 대선 경선(20만명)보다 17만명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호남 민심은 되레 더 적극적으로 의사 표



더불어민주당 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가 지난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각 후보들의 지지자들이 연호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현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충청권과 영남권의 권리당원 수는 각각 11만1863명, 10만3352명이다.

이 분위기는 현장에서도 나타났다. 당일 김대중컨벤션센터 앞에는 인형탈을 쓴 시민들과 당원들의 춤사위가 이어졌고, 연설회장 곳곳에는 ‘내란 종식’ ‘호남 발전’ 구호가 쏟아졌다.

경기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온 조연수(63)씨는 “‘호남 없이는 나라도 없다’는 이순신 장군의 말처럼 민주당에게 호남은 ‘뿌리’로서 절대 뺄 수 없는 존재”라며 “이제 나라를 살릴 사람, 경제를 되돌릴 사람

이 필요하다. 가장 많은 당원이 있는 호남에서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함께하고 싶어 내려왔다”고 말했다.

함평 민주당원 장유주(35)씨는 “이 후보의 득표율은 ‘구대명’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압승으로 호남 민심을 보여줬다”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정말 지역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지역소멸 해결·일자리·놀거리가 풍부한 호남을 위해 민주당 모두가 단일대오로 함께해 달라”고 소망했다.

후보들도 공약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는 ‘호남권 메가시티 완성’과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약속하며 지역 성장동력 육성과 의료 불균형 해소를 강조했다.

김경수 후보는 압도적 정권교체를 다짐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꿈꾼 지역주의 극복을 메가시티 프로젝트로 완성하겠다”고 밝혔고, 김동연 후보는 ‘5월 광주 정신’을 계승해 민주당 통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이끌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정치권은 이번 호남권 경선이 단순한 수치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봤다. 특히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호남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정가 관계자는 “호남이 과거와 같이 민주당에 압도적 지지세를 보였지만 이번에는 ‘변화’라는 큰 바람이 담겨져 있다”며 “광주 군공항 이전, 지역균형발전 등 약속한 지역 현안 해결에 반드시 나서길 바란다. ‘될 사람에게 힘을 실어준 선택’의 의미는 행동을 지켜보겠다는 준엄한 메시지가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순회 경선 중 마지막인 27일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결과, 이재명 후보가 91.54% 득표율을 기록, 최종 누적 득표율 89.77%로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됐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 전남 국립의대 추진 재점화… 통합모델 유지 관건

이재명 “의대 설립으로 인력 양성”  
양 대학 캠퍼스·병원 마련 불투명  
통합 모델 균열시 갈등 재연 우려  
도 관계자 “통합 방침은 변함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전남도민들의 30년 숙원이던 전남 국

립의대 설립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7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4일 발표한 호남권 공약을 통해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 국립 의대를 신설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에 정부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2027년 통합 국립의대 개교를 목표로 전략을 수정한 전라남도는 환영의 목소리를 높였다. 목포대와 순천대 또한 이 후보의 공약을 적극 환영하며 예정대로 대학 통합을 추진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통합 이후 캠퍼스와 대학병원 체제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목포대와 순천대 모두 의대 캠퍼스와 대학병원을 마

련하는 방안이 가능할지 불투명해서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최근 열린 지역 간담회에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 문제는 지난해 전남도가 빨리 하나의 대학을 결정해 2025학년도 정원 배정을 받았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의료 교육과 시설을 분산하기보다는 특정 지역과 대학을 신속히 선정해 추진했어야 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어렵사리 합의된 ‘목포대·순천대 통합 모델’을 거스르고 지역 공모 등 새로운 절차를 밟게 될 경우, 유치 경쟁으로 인한 지역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 전남도의 치밀한 대응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전라남도는 목포대와 순천대, 지역 의료계 등이 참여하는 의대 설립 공동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와 의료계를 설득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말 두 대학이 통합에 합의한 이후 통합대학교로 의대 설립을 추진하는 기본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30여 년간 의대 신설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지역 화합을 위해 통합 의과대학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물입니다.